社 說

넓은 안목과 포부로 역사 증인 되길

—제41회 학위수여식에 부쳐

얼어붙었던 대지에 훈풍이 불어 새싹이 나오고 움추렸던 가지들이 움을 타우는 신선한 이 봄에 여러분들 사회의 신입생들은 낯선 세계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업식 사이건만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은 항상 새롭기 마련이다. 더구나 21세기를 맞아 격변의 정도가 심화되고, 쏟아지는 정보의 접대량이 엄청난 때에, 새로운 시대조류에 맞춰 살아가야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갖는 기대도 큰만큼 우려 또한 큰 것이리라.

짧게는 19년 길게는 18년, 20년의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반타율적으로 살아오던 여러분들은 이제야말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독립개체로서 모든 일에 책임과 권리와 자유를 갖게되는 것이며, 따라서 진정한 자기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최고 학부 수료를 축하하는 동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어디에서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리에 있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드넓은 시각을 갖고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대처하기를 당부한다. 경희의 기상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있어서도 좁다 큰 안목으로 세계를 상대하는 포용력을 가져야함은 물론, 여러분의 경쟁상대는 국내의 좁은 지역과 동료들이 아니고 이웃나라, 먼 나라인 세계 각처의 지역이고 동시에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나 현세의 경세제가는 물론 미래의 여러분 후배들이란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는 우선 강인한 의지력과 함께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학문에는 관절이 없는 자세로, 비록 오늘 졸업을 할 지언정 항상 배우는 자세, 감사의 자세로 대인관계를 맺으며 튼튼한 직업관을 갖기 당부한다. 여러분은 또한 특별한 시명의식을 갖고 경희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바란다. 경희인의 특색은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과 어디에서든지 화합하는 인화의 정신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여러분을 부르는 오늘, 각자는 각인의 재능을 타고난대로, 전문분야의 최고학문을 익힌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하기 당부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영원한 모교로서 '경희'를 버릴 수 없음과 같이 동문들과 그동안 학문적, 인격적 지도를 담당했던 교수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늘 뒷바라지 해주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정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끝으로 여러분들은 "역사는 기록하는 것도 아니며, 지키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참조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잊지 말고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해 하늘을 향해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사회인, 당당한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당부한다.

단순사건처리 아닌 근본대책 절실

—입시부정 사태와 정부 대응안을 보며

우리나라 교육제도, 더나아가 사회제도 전반의 신뢰와 도덕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입시부정. 그 입시부정사건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시간 수습에만 그치고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어 온 입시부정이 유독 올해에 사회전반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리게 한 이유는 당연한 원인에 기인한것이라 여겨진다. 그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빗나간 과열 교육열과 사회제단의 대학에대한 인식이 비교적이고 비도덕적인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너무 열악함에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사회제단 친인척의 사기행의 조사중 표면화되기 시작한 입시부정의 사례들은 이제 어떤 특정 사회의 비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의 문제로 파급되고 이는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요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학은 대학 그 자체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최소한의 순수와 자율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한 사회재단의 입시부정이후에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사학의 문제해결을 위해 긍여지책으로 '기여입학제'실시를 학사관리 우수대학을 기준으로 선정, 우선적으로 빠르면 94년도 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기여입학제'실시가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기여입학제'자체의 시기상조 주장과 제정난 해결 주장등 찬반논의도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교육부의 '기여입학제'실시 검토발표는 입시부정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기여입학제'도입은 일차적인 재정확보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문 투자의 폭을 정책적으로 넓혀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되어져야 하다는 것이다.

각국의 고등교육 사학의존도가 영국 5.8%, 미국 54.8%, 일본 74.1%인 데 비해 우리는 80%로 두드러지게 높으면서도 우리정부의 사립대학 국고지원 비율이 1%정도로 미국 18.4%, 일본 22.4%와는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면 '기여입학제'는 하나의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이 정인교육의 장으로써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상업화되어간다는 것은 한 국가의 장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기여입학제'실시 검토 발표와 함께 입시부정 대학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종전사 결과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입시부정관련대학이 21개대로 사실상 교육부의 발표를 가준으로 본다면 학사관리 우수대학에 해당되는 대학이 몇이나 될까 의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건수습을 위한 단편적인 방법제시보다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교육의 산적한 과제를 풀기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틀후면 문민정부의 출범을 보게된다. 거창한 미사여구보다는 선거당시 국민 앞에 당당히 외쳤던 그 약속, 열악한 교육재정확보를 위해 연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우리는 보고 싶을 따름이다.

총장축사

총장 조 영 식 박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보은 경희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다울러 높은 이상을 가슴에 안고 경희인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커다란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통시에 급변하는 시대조류와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새롭게 여러분 각자의 포부와 소망을 다시한번 가슴에 깊이 다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대변혁의 와중에 휩싸여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전후 세계질서를 지배했던 양 타체제는 붕괴되고 강국체제에서 다원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시계는 대결의 체제에서 화해와 협동의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Pax UN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일찌기 콘인이 명명하여 주장했던 Pax UN의 사회는 1국 또는 양국체제하의 세계질서가 아니라 만민의 자유·평등 그리고 대소국의 동권과 공영이라는 유엔정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도래를 외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의 붕괴를 폭로하면서 부엌이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게 되는가를 명약관화하게 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세계는 국가발전을 통한 인류세계의 공존·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자유경쟁, 선의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지구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의 축이 우럽에서 미대륙을 거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아태지역으로까지 서진해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분명 동북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우리 손안에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역사적 전환점을 바로 자각하고 이에 올바로 대처해야 할터인데 21세기에 세계무명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우리 한국의 지론을 어디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는 한국의 문제인 동시에 오늘 이자리에서 영광의 학위증을 받아들고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의 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소명이야말로 실로 중차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 한국이 해방되면서 1인당 GNP 35달러, 문맹률이 6%를 상회하는 가장 가난한 후진국가로 뒤처져 있었으므로 그 당시 2차대전 전승국들은 우리 한국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 못을 박고 있다. 모스크바회담에서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딱한 처지에 놓여 있던 우리 한국이 국민의 온 뜻으로 하면 된다는 신념을 세워 함께 노력한 결과 모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88서울올림픽에서는 순 국산기자재와 기술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관리능력을 보였고 종합성적 4위라는 저력을 거두어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떨쳤던 것입니다.

한국 건설에의 힘찬 행진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기여하는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신한국건설도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헤내고나 말겠다는 굳은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희인 여러분!

이 어렵고 중차대한 여러분, 아니 모든 경희인의 책무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광소 생활하하던 경희인을 21세기 동북아시대에 있어서의 새로운 세계질서의 창출과 새한국건설의 주역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영광된 자리가 있기까지 모든 정성을 다하여 뒷바라지를 해주신 여러 학부모님들과 오늘까지 정을 다해 가르쳐주신 교수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따뜻한 찬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전 경희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민주화시대 기둥 될 경희인

세계질서 창출과 신한국 건설 주역돼야

속수무책인 인플레 주범

시 론—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소고

김 동 엽

〈청경대교수·무역학〉

일반적으로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은 크게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산품의 물가지수를 보면, 기술의 발전과 기계화의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질적 의미에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한편 불가상승의 주범에은 서비스부문이라 할 수 있다. 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 주범은 서비스부문으로서 지난 2년동안 서비스물품의 물가상승은 공산품에 비해 두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서비스물가가 공산품물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서비스 부문은 공산품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 하지만 정책된 서비스분야의 노동자들이라 해도 그들의 생활수준은 생산성 증가를 주도한 제조업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 임금은 공산품부문의 상승과 같은 속도로 올라 상품가격에 반영된다. 질적으로 서비스산업은 기계화가 매우 어려워 생산성 향상은 그만큼 더디게 마련이다.

둘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질적으로 보다 나은 즉,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를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가격을 상승케 하고 있다. 중국음식점보다 고급음식점을 선호하게 되고 소위 8학군을 선호하게 되어 서비스가격을 상승케 하고 있다. 셋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산업보다 정부의 반일률적정책에 대해 덜 민감하다. 공산품의 급격한 가격인상은 관해 적으로 제고를 누적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제고누적의 위험부담이 없으며 경기침체기에도 적절한 가격인하 압력이 비교적 덜하다. 넷째, 서비스산업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인상을 쉽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녀의 학교나 치과의사, 단골음식점을 바꾸는 것보다 세탁제를 바꾸는 것을 더 쉽게 한다. 즉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이 공산품보다 적다. 이와같은 서비스제품의 특성때문에 전체물가를 목표치인 4~5%로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공산품의 물가인상을 더욱 강력하게 막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심각해 진다. 더욱이 이것은 1·2차 제조산업을 위축시키고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을 더욱 팽창시켜 물가외의 싸움을 더 어렵게 한다. 지난해 물가를 4%이내로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기술혁신을 통한 공산품의 가격안정과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농산물의 대거유입에 의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류는 국제일변도의 물가정책에서 자유화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 및 지시 일변도의 정부의 물가정책은 서비스산업의 규모가 이미 커진 현재의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꾀하지 않는 한 물가를 잡기는 더욱 어려워 진다. 한가지 대책은 그동안 규제 및 통제하에 있던 교통·통신, 금융·보험업 등 각종 서비스산업에 규제완화 및 개방을 통해 경쟁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구조적 조정과 경쟁력향상은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물가안정기조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현상황에서의 90년 물가에 대한 전망은 우울하다. 다행히 국제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은 안정될 전망이지만 물가상승의 주범은 바로 우리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차례의 선거로 인한 통화량의 증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보면 올해의 물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내부적으로는 경기침체, 수출부진 등으로 물가상승요인이 거의 없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목표인 4~5%의 물가상승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아울러 공산품 및 공산품의 가격인상을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가뜩이나 국제가격경쟁력을 잃은 제조산업의 침체를 부추길 것이고 또한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배가하여 장기적인 물가안정에는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이미 연초에 인상한 교통요금, 교육비, 그리고 우편요금 등 각종 정부 및 민간서비스의 가격인상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 인상은 적어도 8%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신정부의 강력한 안정정책을 가정할 경우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득권층의 입력에 굴복하여 성장정책을 지향하고 금융실명제 등 일련의 금융개혁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자유화와 임금인상자제로 묶여 있던 누적된 제문제가 폭발하여 물가는 80년대초를 방불케 하는 수준도 될 것이다.

근본적 물가안정 규제책 전망 불투명

서비스산업 개방 통한 구조개선 선행돼야

(고) (황) (만) (평)

'우울한 졸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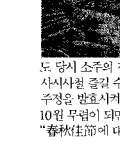
EXPO'93공식주류공급업체

EXPO VS 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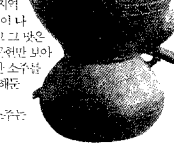
1893년·시카고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유치된 세 13차 엑스포 대회 참가국 명단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해 5월 3일, 83개 2만9천 파운드가 하역되었다는 박람회 보고서 기록으로 보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 싶지만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대단했습니다. 엑스포 최초 참가라는 의미외에도 오랜 쇄국정책을 청산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의 대문을 열려는 다각적 시도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 여물같은 기와집으로 꾸며진 당시 한국관에 관복·도자기·모시·부채·갓·가마 등이 전시되어, 함께 파견된 10명의 국악사들이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더불어 전세계 관람객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시카고의 코리아 선풍'은 나라 안으로는 구한말 고종황제 30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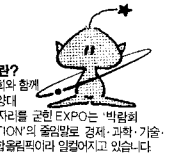
1993년·대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코리아'가 처음으로 참가한 시카고 대회부터 꼭 100년만의 쾌거! 축제 마당은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한 한밭 大田으로, 유서깊은 문화유적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인 대덕연구단지가 함께 하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입니다.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과학의 멋진 어우러짐이 펼쳐지는 가운데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의 문을 여는 지구촌의 대축제 「대전엑스포'93」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이 세계의 東과 西가 어울림 을 원하여 하나로 만나는 장이었다면, 대전엑스포는 세계의 南과 北이, 그 경제적 거리를 뛰어넘어 균형있는 발전 속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893년·서울 세번 고아서 燒酎, 이슬처럼 받아내 露酒, 정기를 돋궈준다 하여 氣酒라고 명칭되던 소주가 마포·동막·공덕리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양조장은 대략 100여호 정도, 제조 보급량이야 지금과 견줄 바가 못되었지만 당시 장안에서 「南酒北餅」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북촌사(지금의 남산 남쪽)이 지역에서 빚어지는 소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 맑음은 물과 같고 그 맛은 진하고 강렬하다"고 지사한 옛 문헌만 보아도 당시 소주의 진가를 넉넉히 가늠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주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도, 이는 봄부터 미련해둔 주정을 발효시켜 부었다가 5월이나 되어서야 뽑기 시작했고 10월 무렵이 되면 그나마도 한해 마무리를 해야 했던 탓에 소주는 "春秋佳節에 대하는 귀한 술"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1993년·眞露 대전 EXPO를 기념하고 우리 술의 국제화를 위해 진로가 새로운 감각의 우리 술을 선보입니다.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新세대 新감각에 어울리는 우리 술'을 개발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선두주자로서의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한데 모아 마침내 眞露가 탄생시킨 新소주 — 「진로엑스포」 최상의 향취만을 엄선해 처은 발효시킨 쌀주정이 첨가되어 그 향이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정밀여과처리로 한번 더 걸러냈어 맑고 투명한 소주 특유의 깨끗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마신 뒤 숙취가 남지 않아 뒷끝 또한 깔끔합니다. 그래서 화려함에 중키고 깨끗하게 취하는 바로 이 소주 — 「진로엑스포」 21세기로 향하는 우리의 깨끗한 선택입니다.





*EXPO란? 올림픽 대회와 함께 세계적인 양대 이벤트로 자리를 굳힌 EXPO는 '박람회 EXPOSITION'의 줄임말로 경제·과학·기술·문화의 종합올림픽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株式會社 眞露

진로엑스포는 EXPO'93을 기념하고 소주의 국제화를 위하여 진로의 첨단 양조기술이 정성껏 제조한 EXPO'93공식소주입니다.

진로엑스포

1924 1955 1967 1979 1989 1992